쓰임 받는 인간과 소모품 인간

(사무엘상 14:16~52)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쓰임 받는 인간과 소모품 인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쓰임 받는 인간과 소모품 인간'
'사축(社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에 취직한 직장인을 가축에 빗댄 말입니다. 가축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일하는 것처럼 회사의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가축처럼 일하는 직장인들을 사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감을 일으켜서 "사축일기"라는 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기가 어렵고 강렬하게 소망하지만 정작 취직을 하고 나면 이럴 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직장과 사표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제목도 다양해서 "초일류사원 삼성을 떠나다 / 사표 사용설명서 / 월간 사표 / 두 번째 퇴사 /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 사축일기 /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 / 일개미 자서전" 등 끝도 없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노예처럼 사는 대신에 나를 찾아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나, 한쪽으로는 실컷 쓰이다가 버려지는 소모품이라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달라는 아우성에 대한 이야기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취직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축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을 쌓아올렸는지 후회하며 떠나고, 취직이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와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소모품도 사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소모품이 되어도 좋으니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인간이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생계 문제 이상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소모품 취급을 당하면서 산다면 인간다울 수 없는데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모품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이라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효용성이 없어지면 퇴사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모품 취급을 받지 않는 상황은 가족의 상황입니다. 노부모님에게 효용성은 없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가족이 있더라도 효용성은 없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소모품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사장님이 나를 가족으로 대우해야 하는데 노력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몇 만 명이나 되는 그룹의 회장님이 어떻게 사원들을 가족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중역조차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퇴사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축 취급을 받기 싫어서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이든 소모품이라도 좋으니 취직만 시켜달라는 사람이든 다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는 극단적 예는 요셉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소모품도 그런 소모품이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항변을 하거나 억울하게 여기거나 분개해본 적이 없이 그 소모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소모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몸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의 꿈을 위한 효용성으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다가 십자가행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은 삼십에 팝니다. 용도와 효용성을 위해 예수님을 소모품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소모품 취급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소모품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역전이 일어나서 빌라도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소모품이 됩니다. 즉 내가 소모품이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소모품 취급하는 사람이나 사회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절대로 소모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나를 소모품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소모품이 되어버리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나를 소모품 취급하는 것이 기정사실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회사 전체가 나를 위한 소모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나 타인이 나를 소모품 취급하는 것은 문제 될 것도 없고 억울하고 서러워할 이유도 아닌 것은,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등생으로 칭송을 받았었는데, 회사에서는 사축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오히려 '나를 소모품 취급하라'고 세상에 대해 얼마든지 말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겉도는 사람이

었는가를 보여주면서 다윗으로 교체되는 섭리의 타당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의 겉도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다윗 왕으로 교체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믹마스에 진을 친 블레셋의 우세한 군사력을 보면서 백성들이 요동하자 사울도 요동하면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신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예언 받게 되고, 그 후에 왕이 다윗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하는 일들은 본문의 문맥에서 역행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의 47~48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울이 망해가는 뉘앙스의 본문에서 사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이 돌출되어 역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울의 모든 업적들이 다윗 왕에게 나라를 넘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소모품 인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고 확장의 역사를 이룬 것이 자기집안의 자식들에게 넘어갔다면 사울의 치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곧바로 자기 대에서 왕위가 끝나고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울이 이룬 모든 업적이 다윗에게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소모품이 되고 맙니다.
신명기 6장 10~1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사'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을 건축하고 짓고 파고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모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의 섭리의 소모품이 되었습니까?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는데 바로 현실 채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분명히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셨고,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혈혈단신 나아가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고 했던 것처럼, 할례 받은 선민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파악해야 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현실'은 왕처럼 빛나는 존재로서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 차지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빛나는 존재로서

내 마음 시선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나 블레셋 진영의 막강한 군사력이 현실이 되고 요동하는 백성들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세상의 대상이나 상황이나 사실을 현실로 채택하여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기능하고 나를 위해 효용성을 띠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현실을 마음으로 채택하여 하나님을 소모품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소모품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모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효용성을 띈 신이 되어 소모품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소모품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모품으로 취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소모품 신으로 취급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소모품 신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경우와 같습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현실이신 상황 안에서 블레셋 군대의 막강함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현실이기 때문에 쓰임 받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전쟁에 임하는 단호한 자세를 표현한 것이지만 군인들은 기진맥진하여 싸울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금식 명령과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겉돌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에 들어갈 때의 사울은 육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저앉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승기를 잡게 되자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의 집안이 끝나게 됩니다. 믹마스에 총집결했던 블레셋을 철저하게 진멸시켰어야 했는데 하나님과 겉도는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모품으로 전락되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은 효용성 이전에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정한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기능성만을 받아들였기에 나를 소모품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소모품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마음에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현실을 위해서 기능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모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도록 해야 하고 나도 하나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먼저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능적인 신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려는 하나님 이외의 존재들을 십자가에서 틀어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들어오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들어오시도록 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소모품이 아닌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현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그 일의 성과를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벌 때에 나는 소모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큰 성과를 이루면 기뻐하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시고 현실이 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모품 신이 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소모품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유전 죄로 인해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현실로 삼으려는 기질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소모품 신으로 삼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소모품 인간이 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